

‘전남도청 소재지’ 무안군, 시승격 본격 활동 재개

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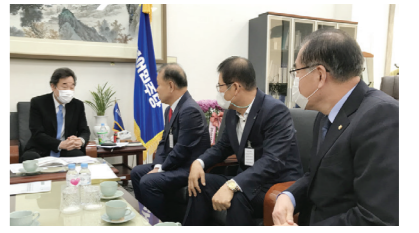
충남 홍성·예산군과 법안통과 역량 결집 다짐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시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 무안군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상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 홍성군, 예산군이 공동 후원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군단위에 머물고 있는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과 충남도청 소재지인 홍성군·예산군에 대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통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실시되었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였으며 법안 통과 시까지 홍성군, 예산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산 군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으로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체계를 갖추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이상익 함평군수, 내년 국비 추가 확보 ‘사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오는 12월 2일 내년도 본예산 확정을 앞두고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군수는 1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 등과 만나 내년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이후에는 서동용 여당 예결위원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사업비를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해 줄 것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군수가 이날 건의할 주요현안사업은 ▲국립 축산창업교육센터 건립(100억 원) ▲함평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170억 원) ▲국도 23호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이개호 의원 서동용 예결위원장 등 차례로 만나 축산창업교육센터 등 현안 건의

(신광~불갑) 위령도도 선행개발공사(140억 원) 등 총 7개 사업 598억 원이다.

이 군수는 또 내년도 예산안 증액 문제와 함께 현재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함평역 경우 문제와 빛그린 산단 내 유력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당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 군수는 이낙연 여당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각 사안별 당위성과 타당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막판 설득에 집중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중앙은 물론 각 지자체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 상임위·예결위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함평=김광준기자

신안군, SRT 3천만명 독자가 선정 ‘최고의 여행지’



신안군이 2020 SRT 어워드에서 독자와 전문가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SRT 매거진은 올해 SRT가 뽑은 최고의 여행지로 신안을 비롯해 10개 도시를 선정했다.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는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연간 3천6백만명이 이용하는 SRT에서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째로 해마다 탑승객 대상 설문조사와 여행작가, 여행전문기자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한

다. 신안군은 자연면에 수석정원, 수석박물관, 세계조개박물관 등이 있는 ‘1004 뮤지엄파크’는 해양 복합 문화단지로 해송숲이 아름다운 양산

전문가 심사 통해 선정 1004뮤지엄파크·퍼플섬 등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로’

해변 50만㎡(축구장 70배)에 특색있는 테마로 꾸며진 뮤지엄파크 공원을 갖추고 지난 8월에 오픈해 1만명이 다녀갔다. 특히,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 반원·박지도 ‘퍼플섬’ 선포식 100일만에 1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돼 하루 평균 700명이 다녀간 셈으로 대한민국 최초 섬 자체를 색채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섬의 가치는 한층 더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신안의 색채를 이용한 마케팅은 몇년 더 빨리 빛을 보고 있다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대표 섬 휴양지(새로운 비대면 관광지)로 가꾸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주요시설물 항공영상(드론)촬영

영광군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관광지, 숲, 택지, 개발지, 저수지 등 10곳의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군민 및 공무원에게 생생한 영상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드론 항공영상 촬영은 관광지, 도시지역, 건축물 등 최신 공간정보를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지 않고도 현장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

도록 하고, 재해지역 예방모니터링 등 정책 결정 업무도 지원한다.

특히, 영광군은 2017년부터 매년 촬영한 항공영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자료를 시스템에 구축하고 있으며, 구축된 항공영상은 각종 세금 부과, 불법 건축물 파악, 불법 형질 변경 등 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공중화장실 도로명 주소 부여한다

영암군은 주소가 없는 관내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쉽게 위치확인 및 안내가 가능하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나타낼 때 지번주소나 인근 건

물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 요청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25개소에 대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위치안내 및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

영암=조대호기자

목포시, 달리도 주민과 ‘섬 지역 소통의 날’ 운영

격의 없는 대화 소통 행정 구현 의료·한방봉사 이·미용 봉사 등

목포시가 지난 12일 ‘2020년 섬 지역(달리도) 소통의 날’을 운영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달리도 유달초등학교 달리분교에서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의원, 봉사단체, 주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으며 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국도77 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제4차 도 서중합개발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설명과 함께 ‘달리도 도로개설 및 하수처리장 설치’ 등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현재 달리도를 포함한 목포시 각 섬의 개성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섬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갖는 불편함을 줄여나가면서 주민 삶의 질과 소득향상에 최우선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통의 날 행사에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한

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LP가스판매조합 등 봉사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기·가스점검, 농기계 점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행사당일 13시부터는 사랑나눔봉사회 등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해 이·미용서비스, 방역, 의료봉사 등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박정수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